

김명엽의 찬송교실 ①

#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, 언제나 **마음**으로 불러야

글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,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

## 302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(통 408)

A. B. Simpson, 1891  
부흥요약

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 
(눅 5:4)

LAUNCH OUT: 11.8, 11.8, REF.  
R. K. Carter, 1891

1.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 다  
2. 왜 너 인생은 언제 나 저기서 저 큰 바다물결보 고  
3.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려 다 가  
4.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바다향 해

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 라  
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 나  
찰 싹 거리는 작은 파도보 고 마 음 약 하여 못 가 네  
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 라 망망한 바다 로

후렴

언 덕 을 떠나 서 창 파 에 매 띠 워  
언 덕 을 떠나 서

내 주 에 수 은 혜 의 바다로 네 맘 껴 져 어 가 라

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

은혜와 사랑



사도바울은 그가 쓴 여러 편지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당시 교회음악을 단어 한 자도 다르지 않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,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. 찬송 학자들에 의하면 시(psalm)란 구약의 시편으로 오늘날 찬양대의 수준 높은 찬양곡을 말하며, 찬송(hymn)은 말 그대로 회중찬송을, 그리고 신령한 노래(spiritual song)는 지금의 복음성가나 CCM, 경배와 찬양 같은 사적인 노래를 말한다. 그런데 그는 이 같은 노래들을 부를 때 ‘마음으로’(in your hearts) 부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송을 부를 적마다 찬송 시의 표현이 곡조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를 생각하여보면 더욱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. 그 가사의 단어가 가지는 뜻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을 어화(語畵, word painting)라고 하는데, 노래하면서 그 경치를 상상해보는 것도 한층 재미있다.

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다 보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절로 생겨날 것이다. 악보 경치를 한번 보라. 음표의 높낮이를 따라 곡선을 그려보면 넘실거리는 웨이브를 느끼게 되지 않는가? 높은 음은 물결이 높고 낮은 음은 물결이 낮고... 1절에서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 “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보라”시던 음성도 들려오는 듯 하고, 2절과 3절에선 파도치는 바다와도 같이 인생살이에서의 크고 작은 파고(波高)를 보게도 되며, 4절에선 그 파고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며 즐기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듯하다. 앞에 보이는 파도만을 보고 그 바다 밑의 무궁무진한 고기떼를 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우리를 향해 은혜의 “깊은 데로 가라” 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렇듯 음표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상징이 들어있는데, 1-8마디와 13-16마디의 높낮이가 파고의 곡선이었던듯이 후렴의 “언덕을 떠나서”에서 언덕은 정말 높은 언덕처럼 음이 높고, “창파에 배 띄워”는 겁먹은 얼굴로 구경만 하던 언덕에서 내려와 배를 띄우듯 음이 낮다.

이 찬송은 캐나다계 미국인인 심슨(Albert Benjamin Simpson, 1848-1919) 목사님이 작사하였는데, 캐나다 토론토의 낙스 대학을 나온 장로교 목사님으로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다.

오른 쪽 위에 보면 영문 고딕체로 LAUNCH OUT라고 쓰여 있는데, 배를 물에 띄운다는 뜻으로 이 찬송의 곡명(tune name)이다. 이 곡을 지은 카터(Russell Kelso Carter, 1849-1926) 목사님은 다재다능한 분으로 음악은 독학으로 공부해서 많은 찬송가를 지어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.

이 찬송가 위편에 보면 작사자와 작곡자 이름 옆에 1891년이라고 작사 작곡 연대가 표기되어 있는데, 심슨 목사님과 카터 목사님이 공동으로 편찬한 ‘성도의 생활 찬송가’(Hymns of the Christian Life)에 발표한 해이다.